

주간기도정보

2024. 9. 1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국내 이주민 ‘추석 수련회’ 곳곳 개최

국내 이주민 단체 및 선교단체,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시간 마련



추석 명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수련회가 국내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안미션(AM)은 국내의 이주민 단체들이 이번 추석을 맞아 8개국 이주민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국내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태국선교협의회(KTM)가 9월 15일(주일)-17일(화) 2박 3일간 국내 태국인 성도들을 위한 ‘2024년 KTM 추석 연합수련회’를 탐비전센터에서 진행한다. KTM은 “그동안 국내 태국인 교회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많은 태국 교인들이 회심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왔다”면서 “이번 수련회는 15개 교회의 약 4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션 차이나 디아스포라(MCD)와 차이스타(CHISTA)는 국내 중국인유학생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024년 차이스타(CHISTA)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그 안에서(IN HIM)’라는 주제로 소망수양관에서 9월 14일(토)-17일(화) 3박 4일간 진행되며,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비전 발견과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발견하고, 중국인 유학생 사역자들에게는 사역 비전 확립과 선교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네팔인들을 위한 수련회도 개최된다. 이번 수련회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4일(토) 오후 3시-16일(월) 오후 2시까지 예성 영성원에서 진행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주제성구로 박성규 목사, 유병설 목사, 이종만 목사, 진성윤 목사, 편해운 목사가 강사로 섬기며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 선교회는 국내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수련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9월 14일(토)-16일(월) 2박 3일간 수지 수양관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현재 한국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10명 내외의 작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자체적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에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밤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전국의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매년 추석 기간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스리랑카 이주민 선교사님들께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과 함께, 스리랑카 이주민들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인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순회선교단 동북아지부에서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몽골인 복음캠프’가 9월 16(월)-18(수)에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순회선교단 국제본부에서 열린다. 몽골어 통역으로 진행되는 캠프는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다. 이 일을 섬기는 동북아지부는 “각 심령의 문을 열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이미 이겨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복음이면 충분한 예수교회로 일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 종합).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 11:16)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로새서1:27-29)

하나님, 고국을 떠나 이 땅에 나그네 되어 고단하고 외로운 이주민들을 기억하사 추석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모임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포된 진리를 통해 이들의 마음 눈을 열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와 한국교회에 주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오길 길을 예비하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지어다”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 섬기는 교회 단속 강화...복음 전파 지속

북한 여성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전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을 섬기는 교회들에 대한 단속을 중국 당국이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10일 전했다.

한국VOM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의 교회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을 섬기는 소수 민족 교회를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VOM은 최근 집행된 단속에서 한 중국 가정교회가 한국어 성경과 한국어로 기록된 모든 문서를 압수당했다며 가정교회에 출석하던 모든 북한 여성은 국가 안전부 관리에게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여줘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제한됐다고 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에게 한국인이나 심지어 조선족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이 같은 처지의 북한 여성들을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는 지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여성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있다고 한국VOM은 전했다.

또한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나 중국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북한 여성들”이라며,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을 개인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적발하고 막기가 매우 어렵고,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VOM에서 훈련받은 북한 여성들은 자신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북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한국VOM은 복음을 듣게 된 북한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A 자매는 “조선에선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며 “중국에서 13년이란 긴 날들을 생각 없이 보냈다가 조선 동포들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세상 갈 길 몰라 헤매던 내게 하늘나라의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간증했다.

B 자매는 “중국에 와서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많이 느꼈다. 항상 외로웠었는데 동무의 소개로 찬송의 노래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됐다”며 “힘들었던 나의 마음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돼 이제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했다.

C 자매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방황의 길에서 헤매며 살던 나였다.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또 받으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다. 앞으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을 위해 바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겠다”고 나눴다.

D 자매는 “타향에서 언어가 달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죄인으로 살다가 목숨까지 버릴 생각도 했던 내가 한 친구의 소개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며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으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로마서 16:26-27)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베드로후서 1:10-12)

하나님, 인신매매로 팔려 슬픔과 서러움에 방황하며 살던 북한 여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사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복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자신과 같은 북한 여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단체와 가정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탈북 여성뿐 아니라 이 진리를 들은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5년 만에 재개된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시 세우기’



2024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가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시 세우기’라는 주제로 9월 2-3일과 7일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됐다. 예장 고신총회와 총회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 2-3일 부산 북구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 드림센터, 7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총회교육원 이사장 김종대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나란히 위기를 맞았다. 다음 세대는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단지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가 어두워지는 중”이라며 “코로나 이후 다시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다함께 모여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두 지역에서 각각 열린 엑스포에서는 크리스 셸리 교수(사우스웨스턴 신학교 교육학장)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시 세우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셸리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교회는 가정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젊은 세대는 교회와 신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가족을 통해, 가족에게 다가가서 제자를 삼기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우스웨스턴에서는 가족 중심 사역을 위한 커리큘럼과 학제를 재구성하고, 특히 가족 사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가정 사역은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역 교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가족 사역을 위한 전략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석 고신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1970년대 다음세대를 키우는 데 많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 그 수고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며 “지금부터 다시 다음세대 제자화를 위해 씨를 뿌려야 하는 파종기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내실화해야 하는 작업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기 고신대 총장은 개회 특강에서 “다음세대를 키우는 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과 끈기로 일컬어지는 심리학 용어 ‘그릿(grit)’과 회복탄력성, 소명과 헌신이다. 3미(의미·흥미·재미)가 있는 교회교육 현장이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 장소에는 SFC, 고신대, 낮은올타리,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어린이전도협회, 오륜교회 꿈미, 유바디, 하이패밀리, 히즈쇼, 카도쉬 아카데미 등 부스를 설치해 다음 세대 사역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교회학교가 특화된 교회나 기독교 교육기관 등이 전시한 48개 부스 앞에는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려는 이들로 북적였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시편 90:16-17)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 1:9,11)

하나님,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 안에 마음을 합하여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교육 엑스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사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이 일에 먼저 헌신 된 단체와 교회를 축복하사 더욱 진리로 붙드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다음세대를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마침내 맺어질 의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다음세대의 순종이 한국을 넘어 열방 중에 일어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